

문화

행복한 책임기

황석영의 '바리데기' <참비 권>

생선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도 우리는 생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오래전에는 '아이를 낳다'는 말을 '아이를 생산하다'라고 하기도 했고 지금 역시 '출산(出産)'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생산에는 소멸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칼릴 지브란은 이를 가리켜 "태어남, 결혼, 그리고 죽음, 태어남, 결혼, 그리고 죽음, 태어남, 결혼, 그리고 죽음 -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다."라고 말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과정이라 해도 죽음만큼 두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과 환생을 꿈꾸게 되었는데도 모른다.

종교는 바로 이런 죽을 때

이 저승이며 지옥이다. 그러나 이런 장소들은 사실 엄연한 현실 세계다. 태어나면서 버려졌던 운명을 타고났던 그녀는 자신의 아이 홀리다 순이가 죽은 뒤 비로소 꿈속에서 진짜 저승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러나 '황천무가'에 나오는 피바다, 불바다, 모래바다를 지나서 다다른 서천 끝에서 그녀는 생명을 구해 오고자 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오고 만다. 빈손으로 돌아오기는 남편 알리도 마찬가지로.

그가 동생 우스만을 찾으러 간 파키스탄도 지옥이었고 압둘 할 아버지는 전쟁이아말로 힘센 자



# 5·18 뮤지컬 '화려한 휴가' 일본 무대 오른다

메이엔터테인먼트·우타고에 전국協 공동 후원자 확보 'Lets 500' 운동 회원 28일 광주방문

내년 1월 출연배우 오디션... 4월부터 본격 연습  
2013년 5월29일~6월1일 도쿄 티아라 고트홀

올해 2월 광주를 방문한 일본 문화 운동단체 '우타고에' 국제교류위원회 야마다 히로카는(52)씨는 당시 뮤지컬 '화려한 휴가'를 관람했다.

"우타고에"(일본어로 '노래소리'라는 뜻)는 오랫동안 광주와 인연을 맺어온 단체. 야마다씨는 당시 일본 공연을 추진중이던 '화려한 휴가' 제작진의 초청으로 일본 초청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일본에서 미리 DVD로 작품을 감상했던 야마다씨는 당시 직접 공연장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시 인터뷰에서 야마다씨는 "일본 공연을 성사시켜야 하는데 어렵고 큰 숙제를 안고 돌아간다"고 웃으며 말했다.

5·18을 다룬 광주(産)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일본 도쿄 무대에 선다. 지난 2010년 초연 후 첫 해외나이다. 2013년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3회 공연이 진행되며 장소는 1200석 규모의 도쿄 티아라 고트홀이다.

이번 일본 공연은 '화려한 휴가' 제작자인 메이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우타고에 전국협회회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일본측은 공연단의 체류비와 공연장 대관료, 장비 대여비 등을 맡고 제작진은 배우 캐스팅, 항공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공연 일정이 확정되면서 제작진도 분주해졌다. 지난 11월에는 도쿄에서 현지 공연 프로덕션과 무대 및 장비 운용에 대한 기술회의가 열렸고, 마케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작진은 2013년 1월 오디션을 통해 19~21명 규모의 출연배우를 선발한 후 4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간

다. 안무, 디자인, 무대, 조명, 영상 작업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활발한 홍보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쿄 공연을 성공시키는 모임'이 결성됐다. 이토 준이치(도쿄지방 노동조합평의회 의장), 니시 쓰네토(일본우타고에 전국협회 회장), 미카미 미쓰루(전국혁신간담회 대표간사)씨 등 3명이 공동 대표위원을 맡고 운영위원으로 야마다 히로키씨 등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매월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 모임은 자체 홍보 리플렛을 제작, 후원자 확보를 위해 'Lets 500' 운동을 진행중이다. 뮤지컬 성공 개최를 위해 500 개인·단체를 모집한다는 계획으로 11월 현재 253건이 접수됐다.

이번 운동에 참가한 '정치적 혁신을 목표로 하는 간담회' '일장기 소송 원고단', 우타고에 합창단 등 사회운동 단체 회원 23명은 28일 광주를 직접 방문했다.

'화려한 휴가' 도쿄공연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방문은 '화려한 휴가' 공연 전에 광주를 방문, 민주 성지 광주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다.

29일까지 광주에 머물 이들은 망월



일본에서 제작한 '화려한 휴가' 후원 리플렛.



내년 5월 일본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화려한 휴가'.

광주와의 교류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948년 설립된 우타고에는 1945년 패전으로 정체성 혼란에 빠진 일본인들의 억압된 의식을 노래를 통해 풀어내고 새로운 가치관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반핵, 평화, 환경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타고에 회원들은 지난 1998년부터 광주를 방문, 5·18 전야제에서 합창 공연을 갖는 등 광주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김원중과 놀이패 신명 초청 공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지난 5월에는 광주시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절망 이길 힘을 보았다

만들어졌다 한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서도 우리네 무속만큼 '광명'과 '생명'과 '소생'의 의미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바리데기'의 서사무가는 그리스의 오르페우스나 북유럽의 신화처럼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저승을 다녀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사는 일이 죽음보다 더 힘들고 값진 것을 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상음부경전에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라고 적어놓고 있다.

하지만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는 실제로 저승에 다녀오지는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이미 저승이기 때문일 것이다. 두만강을 도강한 뒤 잠시 머물게 된 백두산 자락과 흘러진 가족을 찾아가는 길에 만난 산불과 밀항하기 위해 탄 화물선

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이 이루어진 지옥이라고 말한다. 사실 평화를 외치는지는 오래지만 세계는 여전히 테러 중이고 분쟁 중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바로 저승이며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에 압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한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생명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옥의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바리가 구하고자 했던 생명수는 무엇이었나?"고 한 기자가 물었을 때 작가는 그것이 "우리 모두가 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했다. 요즘 어디서나 경제가 어렵다는 말뿐이다. 이런 시대, 우리의 생명수는 과연 무엇일까?

문득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라고 했던 말이 떠오르는 것은 또 왜일까?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 '현의 노래' '단빛' 등 5곡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광주시는 "가야금병창 '현의 노래' 등 5곡 법인 및 단체를 새롭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사)문화예술진흥회 등 2개 비영리법인이며, 단체는 가야금병창 '현의 노래', 우리음악을 위해 연주하는 모임 '단빛', '순수' 등 3개 공연단체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각종 세제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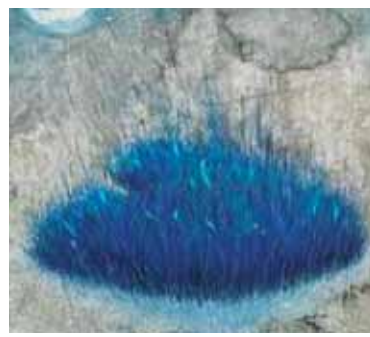
### '12=December Party' 내달 1부터 일곡갤러리

일곡갤러리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12=December Party'라는 전시를 연다.

12명의 젊은 작가가 참여해 2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장르도 한국화, 서양화,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하다.

이번 전시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해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만큼 12명의 작가들은 누구나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파티에 참여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작품 제작에 신경을 썼다.

상처가 깊은 시대, 위로의 물질을 건네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너의 마음'

윤세영씨의 작품을 비롯, 김대욱, 김영일, 조선아씨 등이 참여한다. 문의 062-410-8293. /김지을기자 dok2000@

### 대동문화재단,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연·전시

#### '문화놀이터, 행복한 수다떨기' 한마당

(사)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2012년 시민문화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민문화축제 한마당 '문화놀이터, 행복한 수다떨기'를 펼친다.

이번 행사에서 광주 동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아시아 음식 경연대회, 아시아 푸드 스토리 북 전시를 진행하며 서구는 연극 '그녀들의 3막 7장'과 '맹진사댁 경사'를 공연한다.

남구는 '양림동 골목 풍경 이야기'를 주제로 사진 전시를 개최하며 북구는 아마추어 예술인 문화 나눔 결과 보고회를 갖는다.

그밖에 광산구는 스토리가 있는 광산구-문화재 안내 책자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시는 30일부터 ~ 12월 7일까지 아시아문화마루에서 진행되며 공연은 30일 오후 5시 빛고을극장전수관에서 열린다.

문의 062-674-656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062)525-4835

후원: 한국관광공사 강원권협력단

**겨울 기차여행 가족과 함께 하세요!**

12월24일 ~25일(무박2일) 크리스마스+와남이성 소양림 기차여행 70,000원

12월31일 ~1월1일(무박2일) 신년맞이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 85,000원

1월11일~12일(무박2일) 태백산 눈꽃등반 하이원 관광곤도라 탑승 or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곤도라탑승 85,000원

1월18일~19일(무박2일) 태백산 눈꽃등반 하이원 관광곤도라 탑승 or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곤도라탑승 85,000원

1월25일~26일(무박2일) 태백산 눈꽃등반 하이원 관광곤도라 탑승 or 정동진 일출, 추암 촛대바위,하이원곤도라탑승 85,000원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